

“공약 뒤집기 심각... 국민은 양심있는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광주 기자회견·전남대 특강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30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7일째 전국 순회투쟁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을(乙)을 위한 행진곡 출판기념회 및 을 지키기 입법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광주로 곧바로 내려와 전남대 특강,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뒤집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며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공약 관련 주무장관이 대통령의 사표 반례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양심상 옳지 않다’고 밝힌 것은 기초연금 뒤집기 공약 파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몰고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뿐 아니라 기초연금제 폐지 공약에 대한 반복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기초연금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새누리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공약에 이어 또다시 약속을 파기하고 공약뒤집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데, 이는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원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경쟁적 동지 관계 문화전당 재정지원 명시 안 된 법안 반대 세계수영대회,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칙과 신뢰정치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세력 간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적 동지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집합을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앞 천막에 있을 때 격려차 방문한 안 의원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고 민주주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 국면에서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지원 방안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연구와 교육이 전당 목적에서 빠졌다는 것”이라며 “광주 국회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재정지원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17 세계수영대회와 관련해 “수영대회가 광주만의 대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대회인데 예산을 지원한다, 못한다 설왕설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와 관련해 일부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대회를 유치했고 당연히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대에서 토론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신있는 검찰총장을 물아냈는데 이제는 양심 있는 복지부 장관을 붙잡고 양심을 팔라고 강요하고 있고, 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쫓아내기 시작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양심 있는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고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그럼 이걸 밝혀내는 책임이 검찰총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 소문으로 찍어낸 거 아닙니까”라며 “참 아비한 정권”이라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김 대표는 광주 시민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 이어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를 만나 국정원 개혁 및 민주주의 회복 등 민주당의 대정부·대여 투쟁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 토론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30일 전남대 사회대 별관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농민단체 “민주당, 쌀개방 외면말라”

김한길 대표에 농업정책 대안제시 요구
면담 요구 피켓시위 ... 경찰과 몸싸움도

대표는 “약속이 없었던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오는 10일 이전에 농민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가 민주당의 농업정책 외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 등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은 지난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농업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민주당에 제안한 농업정책 토론회에 대해 아무런 입장 전달도 받지 못하고, 이번 김 대표의 호남 방문에 맞춰 면담도 요청했지만, 외면만 당했다”며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불통’만을 배워왔느냐”고 비난했다.

농민단체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전남도당에 농업정책토론회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으며, 최근 민주당이 농업문제에 우려할 만한 입장을 내놓음

에 따라 김 대표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협상도 하기 전에 쌀 목표가격을 기존안보다 낮게 책정한 법률안을 제출했는가 하면, 쌀 관세화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 의원 전체가 국회 토론회에 불참했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서도 합구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농업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농업 정책에 의지조차도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광주 시민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 10여명은 김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20분 가량 늦어졌다. 뒤늦게 간담회 장소에 도착한 김



교총 “교육감은 교육경력 있어야”

법개정 요구 ... 내년선거 후보 단일화 추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각 교총 지부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부활을 위해 1인 시위를 포함한 강력한 ‘교육자치 사수 저항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계를 아우르는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정당·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를 지원하는 정당은 불신임 운동을 벌인다.

교총은 지난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7개 시·도 교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

요건을 없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재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이 탄생하면 교육 본질은 뒤틀려지고 포퓰리즘 정책만 더욱 난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선거부터 사라지는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도도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배제된 채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시·도 교육이 좌지우지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저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법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교육자치살리기범국민실천연대(가칭)’를 결성해 법 개정운동을 전개한다.

24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의원 홈페이지 사이버 항의 활동, 항의 전화, 방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는 시·도별 범 교육계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한다.
연협뉴스

20회 기념행사 : 올해로 20회가 되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를 기념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김치버스 전국투어’ & ‘김치버스 월드투어 시즌2’
400일간 27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53번의 김치를 일리는 행사를 진행했던 김치버스가 2기를 모집해 국내외 주요 도시와 일본에 김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파합니다.



2013 청소년 G-POP 페스티벌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는 K-POP과 한류의 흐름을 주도할 실력 있는 지역 유망인재 발굴&육성 경연프로그램에서 예비 스타들을 만나보세요.

세계한상대회 특별행사 : All about 광주김치
국·내외 세계한상들이 모두 모여 전시 및 체험을 통해 광주김치산업의 잠재력을 공유하고, 세계김치연구소 홍보관을 통해 과학적 측면에서의 우수성도 알아보세요.
10월 22일(화) - 31일(목) / 상설 /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치문화체험 10월 29일(화) - 31일(목)

2013 소망금줄 대동심미술
2013개의 고추와 소원자를 소망금줄에 직접 달아보세요!
축제 관람객들이 금줄에 고추 2013개와 함께 소원자를 달아 20회를 맞는 축제를 기념하고 김치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기념하는 대동심미술 프로그램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완성된 금줄은 폐막식에서 소원구과 함께 소지됩니다.



특별 프로그램

대표프로그램 ‘김치오감체험관’
김치의 매력에 흠뻑 빠지다!

보고, 듣고, 담고, 맛보고, 느끼는 김치오감체험관에서 김치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세요!! 올해는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확장하였습니다.
김치명인을 만나 김치를 담고보고, 맛보고, 김치재료들을 직접 탐험해보는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한 김치오감체험관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세요.



전시프로그램 : 김치디자인산업관
21세기 김치산업의 미래를 보자!

김치의 역사와 문화가 발달해 가는 과정 전반을 소개하며 21세기 김치산업을 이끌어갈 디자인 김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김치패키지디자인에서 김치마케팅디자인까지 디자인을 통해 김치의 다양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미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된 해외음식사를 살펴보고 여러분과 공감하고자 합니다.



축제 프로그램

김치콘서트 & 김치아카데미
김치와 김치요리의 세계화, 산업화를 위한 전국 김치명인들의 경연과 역대 대통령 수상자의 김치의 맛과 멋이 펼쳐집니다.

김치놀이마당
김치왕 퀴즈게임, 김치 신명 전통놀이, 외국인 김치문화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치문화 나눔마당
김치사랑 나눔 행사, 자치구 시민행마당 등 다채로운 나눔 행사로 커뮤니티축제의 감동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흥겨운 자리입니다.

맛집골목
김치명인의 특별요리와 외국인들을 위한 퓨전김치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광주의 대표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20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Gwangju World Kimchi Culture Festival 2013

남도김치, 세계로 날다
Namdo Kimchi, Fly to the World

홈페이지
http://kimchi.gwangju.go.kr

블로그
http://www.gwangjukimchi.com